

경남농업기술원, 단감 SNS기술컨설팅 시범사업 추진

경남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하는 농식품 SNS 기술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, 경상남도 단감에 대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(SNS) 기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경남농업기술원 내 단감연구소가 주도하는 단감 SNS 컨설팅 시범사업은 네이버 밴드(Naver Band)를 통해 단감 재배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.

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수 확대와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농식품부가 단감을 비롯한 20개 품목을 선정하여, 농가와 전문가가 애로사항에 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.

이 사업으로 전문가와 농업인이 SNS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의사소통으로 영농현장 애로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. 이 사업은 도내 단감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. 경남 단감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 57%, 생산량 64%를 차지하는 주요작물이고,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우수한 과일로 알려져 있다.

현재 농가들은 지역 내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때에 원활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단감SNS기술컨설팅 사업이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전문가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. 가입방법은 휴대폰에 네이버밴드(Naver Band)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.

농업기술원 내 관계자는, “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농업현장과 전문가의 실시간 소통으로 단감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설명했다.